V 결론

ESG 경영은 다음 세대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환경과 현 세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되, 이를 사업모형에 통합시켜 장기적으로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업의 의사결정을 가져가는 것이다. 주주들만의 단기적 수익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시장의 중요한 추세는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자들도 기업의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대상 결정요인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보험과 은행 등 금융회사도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그리고 투자와 융자 등 그들의 사업모형에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추세는 유럽을 필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한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탄소중립 친환경 경제로의 제도적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 과정은 친환경 인프라의 구축과도 연계되며 저탄소 친환경 산업의 부상을 유도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을 도태시킨다. 앞으로 금융감독도 금융시장의 자금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도록 변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과 정책의 변화는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장기적 가치 추구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든다. ESG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도 열어 주기 때문이다. 결국 ESG 경영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용의 증가와 재무적 수익의 감소를 부를 수 있으나 결국 비재무 성과로 상쇄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재무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험회사에게 ESG 경영은 고유의 사업모형인 위험인수와 자산운용 과정에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ESG 평가란 기업이 사업모형을 활용하여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재무적 성과를 시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여 자본의 배분이 장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ESG 평가를 통해 비재무적 성과를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 재무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해외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ESG 평가방법론 그리고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ESG 평가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단위에서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고유 사업모형에 따라 ESG 요소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모형에 반영하여 통합시키는 ESG 경영을 통하여 나온 ESG 성과를 지속가능공시를 통하여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투명하게 시장에 전달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성 평가를 거친 실질적인 ESG 경영의 성과가 잘 정비된 지속가능공시를 통해 세상에 나오면 이는 양질의 기업 ESG 데이터이며 효과적인 ESG 평가를 위한 기반이다. 이 기반 위에서 ESG 평가회사는 효과적인 ESG 평가를 위하여 산업과 기업의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하여 ESG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ESG 평가와 ESG 경영 평가 자문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와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요건도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립될 필요가 있다.